

< 研究노트 >

## Handbook of Communication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動向

吳 斗 凡

### (1) *Handbook of Communication*의 내용

Ithiel de Sola Pool, Wilbur Schramm, Frederick W. Frey, Nathan Maccoby, Edwin Parker가 編纂한 *Handbook of Communication* 이 1973년 刊行되었다.

이 책의 編者인 Pool과 Schramm은, 現在까지 커뮤니케이션 研究文獻이 많이 出版했으나 이들 여러 研究結果들 사이에 틈(gap)이 존재하고, 커뮤니케이션 諸分野의 다양한 原理들에 관한 研究業績들을 概括하는 作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모두 34명의 寄稿者들에 의한 31개의 論文들과 2개의 研究노우트가 실려있다. 이중에 제 1부는 커뮤니케이션 過程에 관한 것으로 11편, 제 2부는 커뮤니케이션 狀況(settings)에 관한 것으로 18편, 그리고 제 3부 研究方法에 관한 것이 2편이다.

제 1부는 基本的 커뮤니케이션 過程에 대한 記述들로서 커뮤니케이션 體系에 대한 概念을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과 言語現象, 매스미디어와 聽衆의 概念, 對人間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들, 그리고 어린이와 커뮤니케이션, 說得과 宣傳에 관한 章들이 실려있다.

제 2부는 現代社會의 다양한 狀況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作用을 고찰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新聞·映畫·放送과 같은 매스미디어와, 小集團, 官僚體制, 廣告, 政黨, 科學的學術機關內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作用을 論하고 아울러 發展하는 現代社會의 커뮤니케이션의 役割을 檢討하고 있으며, 西歐民主主義 환경과는 對照的인 共產主義, 開發途上國,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을 考察한다.

제 3부는 最近의 커뮤니케이션 研究方法論으로 資料分析의 方法과 매스컴效果에 관한 實驗研究方法들을 提示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研究관계 文獻은 지금도 活潑하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 方面의 學者나 職業人에게는 이 龐大해지는 文獻들을 整理하여 보여주는 「地圖」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地圖」로서 제시된 것이 이 「Handbook」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각 章은 커뮤니케

이선 諸分野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발표된 研究結果들(findings)과 論議들(discussions)을 당  
라하여 研究文獻들을 中心으로 考察하고 있다.

이 論文들은 각기 커뮤니케이션 全分野에 걸쳐 美國 커뮤니케이션 學界의 첨단을 걷는  
학자들이 지금까지 제시된 結果들을 總結산하고 새로운 研究方向을 모색한 叢書(collection)  
的인 책이기에 이 책의 內容을 살펴보는 것이 곧 美國 커뮤니케이션學 研究의 動向을 알  
수 있는 尺度가 되지 않을까 한다.

(2) *Handbook of Communication*과 *Science of Human Communication*

Schramm은 1963년에 *The Science of Human Communication*에서 美國 커뮤니케이션  
科學의 創始者로서 4명의 학자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2명은 心理學者, 1명은 社會  
學者, 1명은 政治學者였다. (Schramm의 책과, 金圭煥 「韓國의 메스커뮤니케이션」, 1973.)  
이들 4학자가 社會科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란 학문을 樹立하면서 그 研究方法과 接近  
의 立場이 각기 相異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方法과 立場을 비교해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方向을 알아보는 중요한 方便이 되었다. 1963년도의 *The Science of Human Commu-*  
*nication*과 꼭 10년만에 나온 *Handbook of Communication*을 비교해서 「動向」을 알아보는  
실마리를 얻어본다면, 1963년의 *The Science of Human Communication*에서 당시로서 연구  
의 新傾向을 대표하는 11개의 論文가운데 Schramm 자신이 쓴 총론을 빼고, 하나는 Kurt  
Lewin의 제자인 Leon Festinger가 쓴 것이며, 3개가 Hovland의 제자인 N. Maccoby와  
Janis, Lumsdaine이 쓴 것이며, 다른 셋은 Lazarsfeld의 제자들인 Klapper, E. Katz, H.  
Menzel이 쓴 것이며, 하나는 政治學者인 Pool이 쓴 것이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重要 토픽의 하나인 意味空間에 관한 것(Osgood) 하나와 N. Maccoby의 부인인 E. Macc-  
oby가 쓴 어린이에 대한 T.V.의 效果가 1편이다. 이로써 순전히 機械的으로 「四創始者」의  
전공비율과 *Science of Human Communication*의 目次內容의 비율을 비교하면 <表. 1.>과

<表. 1.>

四 創 始 者	心理學的方向：社會學的方向：政治學的方向=2：1：1
The Science of Human Communication	心理學的方向：社會學的方向：政治學的方向=4：3：1

같았다.

이번의 *Handbook of Communication*의 內容을 10年前의 경향과 비교하기 위해서 위表에  
서와 같이 범주화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대강 살펴보면 <表. 2.>와 같았고 그 위

<表. 2.>

Handbook of Communication	心理學的方向：社會學的方向：政治學的方向=4：3：6
---------------------------	----------------------------

에는 스펙시픽 토픽으로, 言語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 3, 人類學的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것 1, 廣告에 관한 것 1, 국제커뮤니케이션 1, 언론자유와 책임 1, 方法論에 관한 것 2, 로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나머지 8편은 매스컴 과정과 매체론에 관한 것으로 위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기본 接近態度인 心理學的·社會學的·政治學的 기초로부터 응용된 바 實踐領域으로서 위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고유영역이 남겨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The Science of Human Communication*과 *Handbook of Communication*과의 內容分析의 비교를 통해서 느껴지는 바를 整理하면,

1.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研究범위와 체계를 정리하는 Wilbur Schramm의 「地圖」에는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것.

2. 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十字路」에는 定着者가 많이 생겼다는 것.

을 概括해서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단서를 붙일 것은 1963년의 책은 *Human Communication*의 原理的인 것을 주로 다루고 *Handbook*에서는 매스컴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諸領域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두 책의 性格上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점에서 *Handbook*의 內容의 性格을 좀더 明確히 하고 研究動向을 파악하는 데 한걸음 더 접근하기 위하여 *Handbook*과 1960년판 Schramm編, *Mass Communication*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한 方法이겠다.

### (3) *Handbook of Communication*과 *Mass Communications*

1960년도 版 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 두드러진 것은 44개의 論文中 媒體發展史에 관한 것이 5,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것 6, 매스컴의 통제와 지지에 관한 것 5, 커뮤니케이션의 過程에 관한 것 4, 매스컴의 內容에 관한 것 6, 매스컴의 聽衆에 관한 것 3, 效果에 관한 것 7, 매스컴의 責任에 관한 것 7편, 등으로 되었으며 이를 *Handbook of Communication*의 內容과 대미시커 後者의 특징만 간단히 말하면, *Handbook of Communication*에서는 媒體發達史에 관한 것이 없다는 點, 커뮤니케이션의 二段階假說이나 個人的 영향력 같은 것이 각각 독립된 章으로 취급되지 않고 研究史의 內容에서 言及되고 있다는 점, 매스컴과 文化나 大衆文化나 하는 概念이 적다는 점, 매스컴의 自由와 責任을 논하는 분량이 적어졌다는 점 등이고 1960년도 *Mass Communications*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던 것 중 여전히 *Handbook of Communication*의 內容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과 言語(意味論的 接近)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 聽衆研究의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다는 점, 커뮤니케이션과 어린이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 興

論과 宣傳에 관한 것이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 등이고, 1960년에 비해 1973년에, 脚光을 받고있는 쪽은 커뮤니케이션과 學習理論에 관한 것, 說得과 態度變容에 관한 것, 全體主義와 開發途上國 등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분야, 매스미디어의 技術的 變革에 관한 것, 官僚組織과 國民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 科學社會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 國際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 등이라 하겠다.

물론 以上은 Schramm이 편찬한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기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Schramm과 그의 共編者들의 編輯態度에 따라 目次가 좌우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Schramm과 그의 共編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分野를 中心으로 묶었을 可能性이 있으므로 위의 分析은 美國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動向을 알아보는 유용한 方便은 될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배제하고 美國커뮤니케이션 研究의 動向을 좀더 分明하고 客觀的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으로는 *Handbook of Communication*의 各章의 末尾에 실린 방대한 Reference들의 分析을 試圖하였다.

#### (4) *Handbook of Communication*에 나타난 文獻分析

이 책의 31개 章에서 다루고 있는 研究文獻의 수는 총 3,530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문헌이 이 책의 필자들에게 의해서 '採擇'된 것들이기에 딱이 지금껏 커뮤니케이션의 研究文獻의 수가 3,530개가 된다는 얘기는 되지 않을 것이며 또 이 문헌들이 각 章에서 重複 인용되거나 참조된 것도 있음을 고려하면 이 책에서 채택된 실제의 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어쨌든 이 숫자를 분석기준으로 삼아 대강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들중 49%정도는 1965년 이후에서 1972년까지 나온 문헌들이고 51%정도는 1965년 이전에 나온 것들로서 거의 半半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1965년 이전의 것을 다시 1955년 이후와 그 이전으로 나누어 본 결과 전체의 약 36% 정도는 1955년부터 1964년의 10년 사이에 연구된 것들이며, 1954년 이전의 것은 15%정도였다. 이로써 1965년 이후 7년간 연구된 것은 그 이전의 10년간 연구된 양보다 많으며 1954년 이전의 전역사에 걸친 연구보다도 많은 것이었다. 이로써 1965년 이후 1972년까지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그 이전의 같은 기간의 어느때 보다도 활발하고 왕성하게 전진하고 있음을 나타내보인다고 하겠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좀 더 1965년 이후에 많이 연구된 분야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章의 연구문헌들을 각각 1965년 이전과 이후로 분리해 보았다. 그 결과 하나의 예를 들면 Bauer의 「The Audience」라는 챕터에서는 총 문헌 수 40중 4개가 1965년 이후 문헌인데 비하여 Parker의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Mass Media」는 총 75개의 문헌 중 66개가 1965년 이후의 것이어서 88%를 점거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聽衆研究는 1965년 以前에 많이 연구되었고 技術的 變革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1965년 이후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따져 볼 때 1965년 이후에 주로 많이 연구된 분야는 <表. 3.>와 같고, Frank <表. 3.>

각 章의 제목	1965년 이후 문헌의 비율
Non-verbal Communication	66.3%
Political Persuasion	57.2%
Communication in Totalitarian Societies	58.7%
Broadcasting	62.9%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Mass Media	88.0%
Communication Between Bureaucracy and the Public	60.6%
Scientific Communication	77.7%
Public Opinion	78.6%
Bargaining and Cammunication	66.7%
International and Wold Public Opinion	50.0%
Freedom and Control of Communication	68.8%
Aggregate Data	55.8%
Experiments on Communication Effects	51.2%

Allen Pilot의 A Note on Television News and Newspaper News와 같은 연구노우트도 15개의 文獻中 13개가 1965년 이후에 나온 것으로 TV news의 편집방법등에 관한 것은 1965년 이후에 중요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65년 이전에 연구된 문헌이 더 많은 분야는 <表. 4.>와 같았다

<表. 4.>

각 章의 제목	1965년 이후 문헌의 비율
Channel & Audiences	10.9%
The Audience	10.0%
Communication in Primitive System	15.9%
Communist Esoteric Communications	22.7%
Film as Communication	22.9%
Consumer and Advertising Research	34.7%
Communication in Political Parties	39.5%

물론 이런 비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方面의 著者が 그 方面의 문헌을 참조하되 자기가 주로 選好한 자료가 1965년 以後의 것이 중심이면 1965년 이후것을 주로 참조하고 그 이전것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니까 著者の 選好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참고문헌이 워낙 방대하고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총망라 하는 性格을 가졌기에 저자의 選好에만 左右될 餘地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分析한 것을 기초로 結論을 얻어 본다면 요즘 미국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分野는, verbal communication 보다 non-verbal communication에 관한 것이,

그리고 공산주의를 비롯한 전체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 정치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新聞媒體보다는 放送媒體연구가 活潑해졌으며, 원시사회 커뮤니케이션 연구보다는 과학자사회·관료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지역적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그리고 方法論에 관한 연구가 活潑한 分野가 되고 있다고 보겠다.

### (5) 附 言

끝으로 이상의 여러 각도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바 커뮤니케이션 연구체계 論爭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부연해두고 싶다.

즉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方法과 체계는,

1. 문제의식은 哲學的·政治學的·經濟學的인 데서 잡아내고,
2. 分析對象의 把握, 그 對象의 單位의 결정은 社會學的 입장에서 잡고,
3. 研究方法은 心理學的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여기에 必須的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 言語學的, 人類學的, 美學的 人間行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大 大學院 博士課程)